

La Comédiathèque

격리

Jean-Pierre Martinez



comediatheque.net

이 연극의 대본은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 또는 아마추어 극단에 의한 모든 공개 공연은 작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장-피에르 마르티네즈(Jean-Pierre Martinez)와 연락하여 그의 작품 중 하나를 공연하기 위한 허가를 요청하려면 다음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comediatheque.net/>

격리

(Quarantine)

Jean-Pierre Martinez

네 명의 낯선 이들이 강제로 격리되어 결국 버려진 극장임이 드러나는 공간에 갇힙니다. 상상의 양면 거울 뒤에 앉아 있는 그들은 다른 사람들(관객)의 관찰을 받습니다. 소위 감염되었다는 이 낯선 이들은 상황을 고민합니다. 그들이 감염된 바이러스는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그리고 언제 끝날까요? 조금씩 우리는 이 밀실극이 빅 브라더(Big Brother)가 지배하는 가까운 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이 격리의 이유가 단순히 의학적 이유만은 아닐 수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등장인물

도미

팻

맥스

샘/킴

등장인물의 성별은 중요하지 않으며, 모든 등장인물이 성별에 구애받지 않는(혹은 매우 획일적인) 외모를 갖추는 것이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들은 연극이 진행되는 동안 역할을 바꿀 수도 있으며, 각 역할은 의상으로 표현됩니다(파란색, 분홍색 또는 초록색 병원 가운을 입은 환자들; 흰색 실험 가운이나 검은색 마오 셔츠를 입은 간호사들). 이 버전에서는 도미와 맥스가 남성으로, 팻과 샘/킴이 여성으로 설정됩니다.

© La Comédiathèque

제 1 막

무대는 한두 개의 의자를 제외하고는 비어 있어도 좋다. 도미(돔)가 불안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그는 병원 환자복(파란색, 분홍색, 또는 초록색)을 입고 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흥미로워하다가 관객들을 발견하고 놀란다. 관객들을 향해 다가가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들을 살펴본다. 같은 복장을 한 팻(Pat)이 그의 뒤에서 등장한다.

팻 - 안녕하세요.

깜짝 놀란 도미가 몸을 돌리며 팻을 발견한다.

도미 - 깜짝 놀랐잖아요 ...

팻 - 미안해요 ... 당신도 혹시 ...?

도미 - 네 ...

어색한 침묵.

팻 - 혹시 우리 만난 적 있나요?

도미 - 같은 객차에 있었던 것 같아요.

팻 - 맞아요, 13 번 객차! 뭔가 연관이 있는 걸까요 ...

도미 - 연관이요? 13 번 숫자랑 연관 있다는 뜻인가요?

팻 - 아니요, 지금 우리가 여기 같이 있다는 것요! 같은 객차에 있었으니까 ...

도미 - 글썄요. 솔직히 왜 우리가 여기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팻 - 저도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기차에서 내렸을 때, 경찰 두 명이 저 보고 따라오라고 했거든요 ...

도미 - 정말 경찰이었나요?

팻 - 그런 것 같아요 ...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아, 그냥 마스크가 아니라 ... 병원에서 쓰는 그런 마스크요. 그리고 저를 구급차에 태웠어요, 그러고 나서 ...

도미 - 구급차요? 확실해요? 경찰이었다면 ...

팻 - 어쩌면 경찰차일 수도 있겠네요.

도미 - 의료 장비가 있는 경찰차요.

팻 - 맞아요 ... 그리고 저를 여기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 기다리라고 했어요. 당신은요?

도미 - 저도요 ... 그래서 당신도 아무 얘기도 못 들었군요.

팻 - 기다리라고만 했어요.

도미 - 그리고 ... 다른 얘기는 못 들었어요?

팻 - 아니요 ... (잠시 침묵) 네 ... '격리'라는 단어를 들은 것 같기도 해요.

도미 - 아, 정말요 ...?

팻 - 당신도 들었나요?

도미 - 딱히 ...

팻 - 가장 가능성이 크지 않아요?

도미 - 격리라니, 그렇겠죠 ... 그 외에 뭘까요?

팻 - 마스크를 쓴 이유도 설명이 되잖아요.

도미 - 맞아요 ...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죠?

팻 - 기다리는 거죠 ... 그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기다리라고요.

잠시 침묵.

도미 - 격리라니 ... 만약 그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40 일이라는 뜻인데 ...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았으면 좋겠네요.

팻 - 뭐, 격리라고 해도 꼭 40 일이라는 건 아니잖아요. 질병에 따라 다르겠죠.

도미 - 우리가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요?

팻 - 아니면 뭐겠어요? 우리가 격리 중이라면 ...

도미 - 맞아요 ... 바이러스겠죠.

팻 - 아주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요.

도미 - 맞아요 ... 그런 게 분명해요.

팻 - 나는 아무 증상도 없는데, 당신은요?

도미 - 저도요.

팻 - 하지만 ... 그게 무슨 의미는 아니죠. 아직 잠복기일 수도 있잖아요.

도미 - 혹시 의사세요?

팻 - 데이터 수집가예요.

도미 - 데이터 수집가요?

팻 -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 불리던 직업이죠, 아마도.

도미 - 아, 그렇군요 ... 그래서 바이러스에 대해 잘 아시는군요 ...

팻 - 주로 아이 셋 키우면서 배웠죠 ... 당신은요?

도미 - 아니요, 아이는 없어요.

팻 - 아니, 제 말은 ... 의사도 아니시죠?

도미 - 전 트레이너예요.

팻 - 트레이너요 ...

도미 - 예전에 교수라고 불리던 직업이에요, 아마도. 미래에는 우리를 뭐라고 부를지 누가 알겠어요... 관리자라든가.

팻 - 아, 그렇군요...

도미 - 정말요? 뭘 봤다는 거죠?

팻 - 아니요, 제 말은... 당신이 바이러스에 대해 저보다 더 모른다는 뜻이에요...
(잠시 침묵)

도미 - 그래서 그 잠복 기간이라는 게 바이러스에 따라 다르다는 건가요?

팻 - 맞아요... 어떤 경우엔 감염 후 일주일 만에 증상이 나타날 때도 있고, 더 빠르거나 늦을 때
도 있어요.

도미 - 당신, 전염병에 대해서는 꽤 전문가처럼 보이네요... 의사도 아니면서요.

팻 - 말했잖아요, 저 애가 셋이라고요. 한 명이 아프면 며칠 안에 나머지 둘도 똑같이 걸리곤 해
요.

도미 - 그런데 우리는 아프지 않잖아요!

팻 - 병이 나기 훨씬 전에도 전염성이 있을 수 있어요.

도미 - 우리가 실제로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면 말이죠.

팻 - 그래서 아마도 격리인 거겠죠... 아마도요. 하지만 곧 무슨 일인지 설명해 줄 거예요, 분명
히요.

도미 - 네, 분명히 그럴 겁니다...

맥스가 등장한다. 그 역시 같은 환자복을 입고 있다.

도미 - 아... 사람이 많을수록 좋죠...

팻 - 사람이 많을수록... ?

도미 - 예전에 우리가 하던 표현이에요... 사람이 많을수록 즐겁다... 그냥 넘어가요...

팻 - 아마 이분이 뭔가 더 알려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맥스는 매우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몇 걸음 걸어나가 관객을 바라본다.

도미 - 그건 잘 모르겠네요. 보아하니 좀 멍한 상태인 것 같은데요.

팻 - 안녕하세요.

맥스 - 어... 안녕하세요... 저... 저도 방금 여기 왔어요...

도미 - 우리가 방금 왔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맥스 - 네?

도미 - 방금 여기 왔다고 말했잖아요. 우리가 방금 왔다는 걸 어떻게 아는 거죠? 우리가 여기 몇
주 동안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맥스 - 당신들이 여기 몇 주 있었던 거예요?

팻 - 우리도 방금 왔어요.

맥스 - 아... 그러면 저랑 같네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죠.

팻 - 네...

맥스 - 그리고... 왜 우리가 여기 있는지 아세요?

도미 - 사실은 당신이 알려줄 수 있길 바랐어요...

맥스 - 전혀 모르겠어요... 기차에서 내렸을 때 누군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 설명도 없었어요. 이럴 시간 없는데요.

팻 -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집에서 애 셋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남편도요. 당신은요?

맥스 - 아니요, 저는 결혼 안 했어요. 남쪽에서 며칠 동안 병원에 계신 어머니를 뵙고 오던 길이에요.

도미 - 어머니도 아프세요?

맥스 - 엉덩이가 부러지셨어요.

팻 - 그래도 그건 전염되지 않잖아요...

맥스 - 맞아요, 하지만 제 손실된 수입은 어찌죠? 이번 주 말까지 끝내야 할 프로젝트 두 개가 있는데요...

팻 - 어찌면 우리 시간을 보상해 줄지도 몰라요. 직업이 뭐예요?

맥스 - 배관공이에요.

도미 - 필요 없을 때 배관공이라니...

맥스 - 네?

도미 - 아니에요...

팻 - 배관공... 들어본 적은 있는데, 정확히 뭘 하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도미 - 요즘은 수리공이라고 불러요.

팻 - 아, 그렇군요...

도미 - 그러니까 이분은 전문 수리공이시네요. 파이프, 세탁기, 수도꼭지를 고치시는 거죠. 예전에는 배관공이라고 불렀어요.

맥스 - 맞아요.

도미 - 그러면 왜 우리가 여기에 갇혀 있는지 당신도 모르는 거네요?

팻 - 우리가 갇혀 있다고 생각하세요?

도미 - 갇혀 있든 아니든, 격리 중이라면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맥스 - 격리 중이라고 생각하세요?

도미 - 여기 계신 숙련된 전문가에 따르면, 우리 모두 바이러스에 감염됐고 전염성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격리 중이라는 거죠.

맥스 - 바이러스요? 어떤 바이러스요?

팻 - 좋은 질문이네요... 아마도 새로운 바이러스겠죠. 그렇지 않다면 이미 백신이 있었을 테고, 우리가 격리될 이유도 없었을 거예요.

맥스 - 그래요... 하지만 왜 우리가요? 이유를 아세요?

팻 - 아마 감염된 사람과 알지 못한 채 접촉했을지도 모르죠... 아까 병원에 계신 어머니를 보러 갔다고 하지 않았나요?

맥스 - 어머니는 엉덩이가 부러지셨어요!

팻 - 네, 하지만 병원은 바이러스가 번식하기 쉬운 곳이잖아요. 다들 아는 사실 아닌가요?

맥스 - 좋아요, 이제 제 잘못이라는 거군요...

도미 - 진정하세요. 아무도 당신 탓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팻 - 몇 주 동안 여기 있어야 한다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게 좋겠어요.

맥스 - 몇 주 동안 우리를 여기 가둬놓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팻 - 몰라요.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죠.

(잠시 침묵)

맥스 - 그리고 당신, 기분은 어때요?

팻 - 버틸만해요... 바로 집으로 가서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있고 싶었지만, 괜찮을 거예요...

맥스 - 아니요, 그런 건 아무도 신경 안 쓴다고요. 제 말은... 무슨 병이라도 걸릴 것 같다는 느낌이 드냐고요?

팻 *(기분이 상하며)* - 지금은 그런 느낌 없어요.

맥스 - 당신은요?

도미 - 괜찮아요. 하지만... 물어봐줘서 고마워요.

맥스 - 저도요, 아주 건강해요.

도미 - 좋네요, 정말 좋습니다... 우린 당신이 행복하다니 참 기뻐요...

맥스가 다시 주위를 둘러본다.

맥스 - 여기가 어디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 있나요?

도미 - 아니요... 우릴 데려온 영구차 안에서 보이지 않았어요.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었거든요.

맥스 - 영구차요? 확실해요?

도미 - 제가 그렇게 말했나요...? 미안해요, 구급차라고 말하려던 건데요.

팻 - 이동 시간은 길어야 15 분이었어요. 기차역에서 멀리 떨어지진 않은 것 같아요...

맥스 - 그래요... 하지만 여긴 병원이 아니잖아요.

팻 - 맞아요... 하지만 우린 아직 아프지 않잖아요.

맥스 - 이 장소는 이상해요... 여기가 뭐죠?

(맥스가 무대 가장자리를 걸어가다 관객을 발견하고 얼굴이 굳는다.)

맥스 - 저 사람들은 누구죠?

팻 - 누구요? 무슨 말이에요?

맥스 *(관객을 가리키며)* - 저 사람들요!

팻이 가까이 다가가 눈을 가늘게 뜬다.

팻 -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조명 때문이에요... 눈이 부셔요...

맥스 - 저기요! 저 사람들 전부요! 우리를 보고 있잖아요!

팻 (*드디어 관객을 알아차리고*) - 말도 안 돼요... 저게 뭐죠...? (*도미를 향해*) 당신도 봤어요?

도미 - 네... 제가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본 게 그거였어요.

팻 - 뭔가 말할 수도 있잖아요!

도미 - 뭘 말하라고요?

팻 -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는 거요! 누군가 엿듣고 있다는 거요!

도미 - 깜빡했네요...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우리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뭔가 수상한 말도 안 했고요...

팻 - 그러길 바라요...

맥스 -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팻 - 이건 악몽이에요...

맥스 - 당신 생각에, 저들이 우리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도미 - 아마도 그게 여기 있는 이유겠죠.

맥스 - 우리 말을 듣기 위해서요?

팻 - 최소한 우리를 관찰하기 위해서겠죠. 우리가 관찰 대상이잖아요. 질병의 진행 상황을 감시하려고요...

맥스 - 이상하네요, 저 사람들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도미 - 어쩌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지도요.

팻 - 아니면 어딘가 유리 뒤에 있을지도 몰라요.

맥스 - 유리요?

팻 - 있잖아요, 심문실에 있는 양면 거울 같은 거요... (*조명기를 똑바로 쳐다보며 눈을 가늘게 뜬다*) 그래서 얼굴에 바로 조명을 쏘는 거겠죠...

도미 - 전 심문실에 있어본 적 없어요. 오늘 전에는요.

팻 - 하지만 제 말은 알겠죠. 거울의 '맞은편'에 있으면 다른 방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지만, 그들은 당신을 볼 수 없다는 거요.

맥스 - 다른 방에 있는 사람이라니요?

팻 - 용의자들이요!

맥스 -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저 사람들을 볼 수 있잖아요.

도미 - 한 가지 확실한 건, 내가 심문실에 들어간다면, 내가 그 '맞은편'에 있을 가능성은 희박할 거라는 거죠.

맥스 - '맞은편'이라니요? 어느 쪽을 말하는 건데요?

도미 - 거울의 맞은편이요! 그들을 볼 수 있지만, 그들은 우리를 볼 수 없는 쪽이요.

맥스 - 그러니까 그 논리를 따르면, 저 사람들이 심문을 받는 거고... 우리는 목격자인 거네요.

팻 - 맞아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우리는 경찰도 아니잖아요...

도미 - 당신 말이 그렇다는 거죠...

팻 - 뭐라고요?

도미 - 당신이 심문실에 대해 직접적인 경험이 꽤 있는 것 같아서요...

팻 - 무슨 말을 하려는 거죠?

도미 - 모르겠네요... 하지만 바이러스에 대해선 정말 많이 아시는 것 같고... 심문실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아시고요. 우리에게 뭐 얘기하고 싶은 게 있나요? 설마 당신이 여기에 온 이유가 따로 있는 건 아니겠죠?

팻 - 그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맥스 - 당신이 첩보 활동 중일 수도 있죠. 이 신사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 같은데요. 스파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겠네요...

팻 - 제가 보기엔 우리 모두 미쳐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은 의사일 거예요. 우리의 감염 진행 상황을 기록하러 여기 있는 거죠, 자신들이 감염될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서요.

맥스 - 그냥 무시합시다.

도미 - 맞아요. 무시해버리죠... 우리가 실험실의 실험쥐도 아니고, 수백 명의 전문가들이 밤낮으로 우리의 죽음 시기와 방식을 관찰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샘이 등장한다. 그녀도 같은 환자복을 입고 있다.

샘 - 안녕하세요...

팻 - 이분이 뭔가 더 아실지도 몰라요... 안녕하세요, 혹시 의사신가요?

샘 - 저는 정보 제공자입니다.

팻 - 정보 제공자요?

도미 - 예전에는 기자라고 불리던 직업이죠, 아마도.

맥스 - 아... 그러면 우리랑 비슷하시네요.

샘 - 당신들 모두 정보 제공자들이에요?

맥스 - 아니요... 제 말은 당신도 우리처럼 여기 있는 거라구요... 왜 우리가 여기로 끌려왔는지 모르신다는 거죠.

샘 - 네, 죄송하지만 전혀 몰라요. 기차에서 내렸을 때...

도미 - 네네, 그 얘긴 이미 들었어요...

샘 - 저는 그냥 질문에 답한 것뿐이에요... 왜 물으시는 거죠, 이미 아신다면?

맥스 - 하지만 저희도 몰라요! 방금 그랬잖아요!

샘 - 진정하세요, 그렇게 화낼 필요 없어요.

맥스 - 죄송해요, 맞는 말이에요.

샘 - 그래서요, 기차에서 내렸는데... 경찰들이 저를 여기로 데려왔어요. 그 외엔 아는 게 없어요. 왜 우리가 체포됐는지도 전혀 몰라요.

도미 - 그들이 당신에게 체포됐다고 말했어요?

샘 -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한 건 아니지만...

팻 - 제가 듣기엔 '격리'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샘 - 어쩌면 '체포 영장(warrant in)' 같은 말을 했을지도 몰라요...

도미 - 갈수록 흥미진진하군요...

샘 - 우리가 경찰의 관리 아래 있다면, 분명히 타당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도미 - 아, 이제 우리가 경찰의 관리 아래 있다는 거예요?

샘 - 죄송해요... 제가 말하려던 건 관찰 대상이라는 거였어요...

팻이 목소리를 낮추며 조용히 관객을 가리킨다.

팻 - 그러면 저기 앉아서 아무 말도 없이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누군지 당신도 모르신다는 거죠...

샘이 관객을 알아차리지만 놀란 기색은 보이지 않는다.

샘 - 네...

맥스 - 그럼 당신도 같은 기차에 있었던 건가요?

샘 - 13 번 객차, 40 번 좌석이요. 당신은요?

팻 - 42 번이요.

맥스 - 41 번.

도미 - 43 번.

샘 - 그럼 우리 다 나란히 앉아 있었네요.

팻 - 아니면 서로 마주보고 있었던 거겠죠.

샘 - 그렇다면 우리 모두 같은 사람에게 감염됐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누구죠? 그는 다른 사람들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본다. 모두가 당황한 표정을 짓는다.

팻 - 이 환자복 차림 좀 보세요. 정신병원 환자가 된 기분이에요...

맥스 - 하지만 미친 건 전염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샘 - 그래도 모든 신체 접촉은 피하는 게 좋겠어요.

도미 - 아, 그러니까 당신은 애초에 그럴 계획이라도 있었나요...

팻 - 기침도 하지 말아야겠어요. 하더라도 입을 가리고 해야죠.

도미 - 우리가 전염성이 있다면 왜 마스크는 안 썼을까요?

팻 - 아마도 우리끼리만 있으니까 소용없다고 생각했겠죠. 어차피 이미 감염됐다면...

샘 - 감염이요?

팻 - 죄송해요, 전염됐다는 뜻이었어요.

맥스 - 그렇다면 기침할 때 입을 가리는 것도 소용없겠네요.

도미 - 그러면 서로 접촉해도 되나요?

샘 - 우선 자기소개부터 하죠. *(도미에게 손을 내밀며)* 샘입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도미는 샘이 내민 손을 잡는다.

도미 - 도미예요.

다른 사람들도 따라한다.

팻 - 팻입니다.

맥스 - 맥스입니다.

약간의 불안감을 안고 모두가 악수를 나눈다. 갑자기 스피커에서 잡음이 나더니 목소리가 들린다.

목소리 - 안녕하세요, 모두들.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잠시 망설이는 침묵.

샘 - 네, 잘 들립니다.

도미 - 음, 잘 들리긴 하는데, 명확하진 않아요.

목소리 - 먼저, 이런 상황에 대해 불편함을 드려 죄송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건강 위기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조치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신속하게 대응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이곳 격리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드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 구금이 아니라 격리입니다.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설계된 이곳에서요...

팻 -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건강 위기의 정확한 성격을 알 수 있을까요?

목소리 - 스피커를 통해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곧 누군가가 찾아가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입구 홀에는 냉장고와 가득 채워진 식료품 저장고가 있으니, 원하시는 만큼 드세요. 또한 복도로 연결된 문이 있고, 그 문을 따라가면 각 방에 욕실이 딸린 침실이 있습니다. 미니바도 완비되어 있어요. 다소 기본적인 시설이지만 필요한 건 모두 있을 겁니다...

도미 - 필요한 모든 게요?

목소리 - 테이블 축구도 있습니다.

맥스 - 그런데 최소한 우리가 얼마나 여기 있어야 하는지는 말해줄 수 있나요?

팻 - 집에서 남편과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걱정할 거예요. 적어도 제 아이들은요...

목소리 -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족, 고용주, 그리고 고객 모두에게 이미 통보가 완료되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시간을 즐기세요. 곧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다시 잡음이 들리고,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다.

팻 - '이곳에서의 시간을 즐기라'고요?

도미 - 보셨죠... 그들이 말했잖아요... 그냥 입 다물고 기다리라고요...

샘 - 말도 안 돼요...

모두 충격을 받은 표정이다.

팻 - 남편에게 전화할 거예요. 적어도 알려줘야죠. *(휴대전화를 꺼낸다.)* 어쩌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도 있겠네요... *(키를 누르고 얼굴이 굳는다.)* 신호가 없어요... 당신은요...?

도미가 휴대전화를 꺼낸다.

도미 - 저도 없어요.

샘 - 아마도 방해 전파기를 사용 중일지도요...

맥스 -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모두 혼란스러워한다.

팻 - 그럼 정말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거네요...

도미 - 이제 어떡하죠?

샘 - 우리가 뭘 해야 한다고 보세요?

잠시 침묵.

맥스 - 먹을 걸 찾아보죠.

도미 - 뭐라고요?

맥스 - 먹을 게 어디 있는지 알려줬잖아요.

도미 - 그러니까 우리가 이유도 모르고 감금당하고, 외부와의 소통 방법도 없는데, 이 사람의 첫 번째 생각은... 먹는 거라고요?

맥스 - 당신은 더 나은 생각이라도 있어요?

도미 - 아니요...

맥스 - 그렇죠. 그러니 당신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지만 저는 정말 배고파서 뭐라도 먹어야겠어요...

그가 떠난다. 다른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본다.

샘 - 사실 저도 약간 출출하네요...

그도 떠난다.

도미 -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팻 - 결국... 굶어 죽는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녀도 떠난다. 잠시 망설이다가 도미도 그녀를 따라간다.

어둠.

제 2 막

불이 다시 켜진다. 도미와 팻은 마치 갇힌 사자처럼 왔다 갔다 하며 초조해한다. 맥스는 관심 없는 듯한 표정으로 피자 한 조각을 먹으며 그들을 바라본다.

팻 - 우리 전에 네 명 아니었어요?

도미 - 맞아요, 네 명이었죠...

팻 - 네 번째 사람이 사라졌네요...

도미 - 그 사람 이름이 뭐였더라?

맥스 - 김이요.

팻 - 김?

도미 - 샘이었던 것 같아요.

맥스 - 맞아요, 샘이었죠...

도미 - 그 사람이 어떻게 된 걸까요?

맥스 - 아마 풀려났을 수도 있죠.

팻 - 풀려났다고요? 그럼 우리는요?

도미 - 아니면 죽었을 수도 있어요...

팻 - 죽었다고요? 그 병 때문이에요?

도미 - 모르겠어요. (맥스를 향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맥스 - 네, 죽었을 수도 있죠.

팻 - 식욕은 방해받지 않는 것 같네요...

잠시 침묵.

도미 - 우리가 여기 얼마나 있었죠?

팻 - 일주일쯤 된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맥스 - 정확히 7 일이에요.

팻 - 네, 제가 그랬잖아요... 일주일. 미쳐가는 기분이에요.

도미 - 나도요.

팻 - 아직 완전히 미치지 않았지만,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맥스 - 우리를 관찰하고 있어서 다행이네요.

도미 - 그들? 그게 누구죠?

맥스 - 그들 말이에요. 알잖아요, 보건 당국. 스피커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못 들었어요?

팻 - 그건 스피커에서 들린 그냥 무작위 목소리였어요...

도미 -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 무슨 상황인지 얼마나 알고 있나요? 어쩌면 우리가 납치당한 걸 수도 있죠...

맥스 - 경찰들한테요?

팻 - 그 사람들이 정말 경찰이었을까요? 마스크를 쓰고 있었잖아요...

맥스 - 그런데 왜 우리를 납치했겠어요?

도미 - 가족들에게 몸값을 요구하려고요? 저는 가족도 없어요... 당신들도 억만장자는 아니겠죠.

팻 - 저는 아파트 하나 있는데, 사실 50년 동안 대출금을 다 갚기 전까지는 은행 소유나 마찬가지로 지어요. 은행이 제 몸값을 내주면서까지 제가 대출금을 계속 갚게 만들 이유는 없겠죠.

도미 - 그런데 몸값 요구는 없었잖아요.

맥스 - 내가 아는 한 없었어요.

도미 - 우리를 납치한 사람들이 우리가 가치가 없다는 걸 깨닫고 그냥 떠나버린 거겠죠. 그리고 우리를 풀어주는 걸 잊었나 봐요...

팻 - 아니면 인질 상황일 수도 있죠. 그런 상황은 보통 오래 걸려요. 몇 년씩 걸릴 때도 있잖아요.

맥스 - 인질 상황이라고요?

팻 - 왜 안 돼요? 그들이 요구 조건을 내걸었고, 당국이 응하지 않으면 우리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을 수도 있잖아요.

맥스 - 그게 사실이라면, 운이 없네요.

도미 - 당신이요?

맥스 - 아니요, 제 말은... 우리요, 우리. 우리가 운이 없는 거라고요. 당국은 테러범과 협상하지 않는 지 오래됐잖아요. 인질의 목숨이 위험해도요.

잠시 침묵.

팻 - 우리 점점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한 격리 상황일 뿐이에요. 그게 다예요.

도미 -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팻 - 글썄요, 그렇게 믿기로 했어요. 그래야 제 정신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맥스 - 맞아요. 너무 부정적인 생각에만 집중하지 말아요.

팻 - 보세요, 아무도 아프지 않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정말 격리라면, 결국 우리를 풀어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맥스 - 그런데 왜 우리가 유일한 감염자라고 생각하죠?

도미 - 죽었다고요? 당신은 '감염'이라고 말하려던 거죠. 흥미로운 프로이트적 실수네요.

팻 - 그냥 말실수였어요. 그래서 뭐요?

맥스 - 몰라요... 아무 뜻도 없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도미 - 아무것도요. 아무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만약 뭔가 생각하더라도, 당신에게 말할 것 같진 않아요.

팻이 관객을 향해 선다.

팻 - 그런데 저 사람들은 어때요... 아직도 저기 있네요...

맥스 - 어쩌면 그들도 떠날 수 없는 걸지도 모르죠.

팻 - 그들도 우리처럼 인질인가요?

도미 - 만약 그들이 자유롭게 떠날 수 있다면, 왜 아직도 여기 있는지 전혀 모르겠네요.

맥스 - 그러니까요... 여기서 무슨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아닌데요.

팻 - 마치 우리가 리얼리티 쇼에 나오는 것 같아요. 곧 우리도 지루해질 거예요...

닥터 김이 무대 뒤에서 등장한다. 그녀는 샘을 연기하던 배우와 동일한 사람으로, 검은색 마오 셔츠를 입고 TV 진행자처럼 미소 짓고 있다.

김 - 안녕하세요! 제 사랑스러운 친구들!

세 사람이 놀라며 뒤를 돌아본다.

팻 - 우리처럼 병원 가운을 입고 있지 않으니 의사겠네요.

도미 - 이상하네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팻 - 저도요. 전에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맥스 - 어쩌면 그녀가 우리가 여기 왜 있는지 설명해 줄지도 모르겠네요...

도미 - 드디어!

팻 - 안녕하세요, 의사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우리 풀려나는 건가요?

김 - 아직은 아니에요...

도미 - 그럼, 당신이 누구인지,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부터 말해주시죠.

김 - 저는... 여러분의 개혁자입니다.

팻 - 개혁자요?

김 -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여러분을 다시 정상 궤도로 돌려놓기 위해서예요.

도미 - 예전에는 치료사라고 불렀던 것 같네요.

팻 - 그런데 당신은 의사인가요?

김 - 네, 기술적으로는 의사입니다... 저는 닥터 김이에요. 여러분을 치료하러 왔어요.

도미 - 우리를 치료한다고요?

김 -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을 건강의 올바른 길로 되돌리기 위해서요...

팻 -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김 - 어떻게 하긴요? 여러분을 재포맷해서요. 아직 너무 늦지 않았다면요...

팻 - 그럼 백신은 없는 거네요.

맥스 - 완벽하네요, 벌써 안심되네요...

팻 - 그런데 왜 우리를 여기 가둬두는 거죠? 이제 이유를 말해줘야 해요.

김 - 여러분은 위험한 사람과 접촉했어요.

맥스 - 위험한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했다는 뜻인가요?

김 - 네, 그런 셈이죠. 우리가 기다리는 건, 여러분이 감염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도미 - 그런데 우리 아무 치료도 받지 않았잖아요!

김 - 알려진 치료법이 없어요.

도미 - 의학적 치료가 없다는 뜻인가요?

김 - 그렇죠, 왜냐하면 아직 증상이 없잖아요!

김 - 그 병은 잠복기가 아주 길 수도 있어요.

도미 - 만약 우리가 정말 그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죠?

김 - 지침을 기다리고 있어요.

도미 - 마치 미리 사용된 하드 드라이브가 있는 로봇과 이야기하는 기분이에요. 혹시 당신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건 아닌가요?

팻 - 제가 아는 건, 우리가 여기서 일주일째 가족과의 접촉이 차단됐다는 거예요...

도미 - 전화조차도요!

팻 - 네트워크가 방해받고 있어요. 전화로 바이러스를 전파할 순 없잖아요, 그렇죠?

김 - 바이러스에 따라 다르죠...

팻이 관객을 가리킨다.

팻 - 그리고 저기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뭐죠?

김 - 그들도 실험 대상이에요.

팻 - 우리처럼요? 그러면 인정하시는 거네요. 우리가 실험 대상이라는 걸요.

김 - 여러분과 같은 중증 감염 환자들과의 장기 접촉 후 그들의 반응을 연구하기 위해서죠.

도미 -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 접촉한 적이 없잖아요!

김 - 아니요, 하지만 그들은 여러분을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어요.

맥스 - 실험실에 갇힌 햄스터가 된 기분이에요.

팻 - 운동이라도 좀 하게 쳇바퀴라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김 - 이건 게임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팻 - 제발, 이 바이러스가 도대체 뭔데요?

김 - 사실... 그건 바이러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맥스 - 그럼 뭐죠?

김 - 음성으로 전염되거나, 시각적으로 전염되거나, 혹은 둘 다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는 모방을 통해 퍼지죠.

도미 - 아, 이제야 말이 좀 되네요.

김 - 13 번 객차에서 누군가가 부적절하고, 심지어 일탈적인 행동을 했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위험을 초래했어요.

팻 - 어떤 행동이요?

김 - 정말 기억이 안 나세요?

팻 - 네, 기억 안 나요.

김 - 다른 사람은요? 기억나는 거 없어요?

도미 - 없어요.

김 - 그건 두고 봐야겠네요. 여러분이 여기에 갇힌 이유는 여러분이 전염성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팻 - 전염성? 그런데 바이러스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김 - 다시 말하자면, 위험한 행동을 재현하려는 유혹을 느끼지 않을 거라는 걸 확인하려는 거예요.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킬 위험도 방지하려는 거죠.

팻 - 그럼 우리를 여기 얼마나 더 가둘 건가요? 우리가 전염성이 없다는 걸 확신할 때까지요?

김 - 아직 지침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은 기억하려고 노력하세요.

샘 - 뭘 기억하라는 거죠?

김 - 13 번 객차에서 봤거나 들었을지도 모르는 것들이요.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팻 - 그런데...

김 -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곧 다시 뵙죠. 그동안 필요하신 게 있으면 주저 하지 말고 알려주세요.

팻 - 알려달라고요? 어떻게요? 우리는 여기에 갇혀 있고, 외부와는 물론 룸서비스와도 소통할 방법이 없잖아요!

김 - 걱정 마세요...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도미 - 두드리라, 그러면 풀려날 것이요?

킴이 떠난다.

팻 - “기억하려고 노력하세요”라니...

맥스 - 뭔가 기억나는 거 있어요?

도미 - 없어요... 당신은요?

팻 - 저도 없어요...

도미 - 그리고 설령 기억난다 해도, 우리가 그걸 인정하겠어요?

맥스 - 왜 안 돼요?

팻 (*관객을 가리키며*) -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상기시켜 드릴게요...

도미 - 그건 절대 잊을 리 없죠.

맥스 -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면, 이상 행동은 피하잖아요, 그렇죠?

도미 - 그런데 이상 행동이라는 게 대체 뭔가요?

팻 - 무엇과 비교해서 이상하다는 거죠?

맥스 - 모르겠어요...

팻 - 이제 더 이상 모르는 것 같아요.

도미 - 한때는 알고 있었겠죠... 하지만 잊어버렸어요.

잠시 침묵.

맥스 - 이렇게 생각만 하니까 배가 고프네요. 당신은요?

맥스가 떠난다.

팻 - 저 사람은 정말 단순한 생각밖에 없네요.

도미 - 점점 저 사람이 우리를 지켜보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팻 - 그런데 이미 우리를 지켜보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도미 - 제 말은, 내부에서 지켜보는 거요.

팻 - 스파이요? 우리 중 누구라도 스파이일 수 있겠네요.

도미 - 그렇죠... 어쩌면 제가 스파이일 수도 있죠?

팻 - 아니요, 당신은 그들 중 하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도미 - 그럼 당신이 스파이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당신이 나한테 말하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팻 - 그럼 제가 제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겠죠. 당신은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도미 - 그냥 조심하고 있는 거예요...

팻 - 좋아요, 그럼 제가 말해볼게요.

도미 - 그러세요.

팻 - 제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실 그건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니에요.

도미 - 정말요?

팻 - 뭔가 기억나요.

도미 - 듣고 있어요... (*관객을 가리키며*) 우리 모두 듣고 있죠, 여기 있는 모두가요...

팻 - 기차에서 우리 옆에 앉아 있던 부부가 기억나요.

도미 - 아, 그래요...?

팻 - 남자가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도미 - 이야기요?

팻 - 좀 황당한 농담이었어요.

도미 - 어서 듣고 싶네요.

팻 - 어떤 남자가 거울을 발견했어요. 거울을 보더니 자기 모습을 보고 말하죠. "이 자식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그러자 친구가 거울을 가져가서 들여다보며 말해요. "당연하지, 그게 나잖아!"

도미 - 그게 황당한 농담이라고요?

팻 - 음, 그런 말도 안 되는 농담을 하려면 좀 제정신이 아니어야겠죠. 늘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그렇죠?

도미 - 그렇죠...

팻 -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당신도 전에 들었잖아요.

도미 - 아마도요.

팻 - 당신도 제가 들은 그 자리에서 들었어요. 기차에서요.

도미 -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뭐요?

팻 - 그 여자의 얼굴이... 찡그렸어요. 그러더니 경련에 사로잡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떨기 시작했죠. 그리고 입을 열더니 짧은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도미 - 소리요? 어떤 소리요?

팻 - "하, 하, 하!"

도미 - "하, 하, 하?"

팻 - "하, 하, 하!"

그녀가 약간 히스테리컬하게 웃기 시작한다.

도미 - 제발, 목소리 좀 낮춰요... 그리고요?

팻 - 그녀는 고통스러워 보이지 않았어요. 남자가 그녀를 보더니 똑같은 증상을 보였죠.

도미 - 그럼 이건 정말 전염성이 있네요. 그리고요?

팻 - 그때 경찰들이 와서 그 둘을 데려갔어요.

도미 - 그렇군요...

팻 - 그렇죠, 당신도 알잖아요. 당신도 저랑 거기 있었잖아요.

도미 - 기억이 안 나요...

팻 - 저는 스파이가 아니에요. 말해도 돼요.

잠시 침묵. 도미가 그녀를 무대 뒤쪽으로 데리고 가 관객들과 멀리 떨어진다.

도미 - 그걸 웃음이라고 해요.

팻 - 뭐라고요?

도미 - 방금 말한 그 전염병, 당신이 묘사한 증상들... 그걸 웃음이라고 부르죠.

팻 - 웃음이에요? 그게 뭔데요?

도미 - 보건 당국이 한때 근절했던 질병이에요. 글썄요, 완전히는 아니었나 보네요.

팻 - 그런데 그게 무슨 병이에요?

도미 - 아주 오래된 거예요. 인류만큼 오래됐죠. 증상은 비교적 해롭지 않지만, 감염된 사람들은 무질서한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일탈적이라고 하죠...

팻 - 그런데 제가 방금 같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웃지 않았어요.

도미 - 같은 이야기는 두 번째 들으면 덜 웃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웃는 습관을 잃어버렸어요. 뭐가 웃긴지조차 모르죠.

팻 - 웃기다니요?

도미 - 네, 웃기다요. 혹은 코믹하다. 웃음을 유발하는 게 바로 그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웃는 법을 몰라요.

팻 - 당신은요? 가끔... 웃어요?

도미 - 몰래요, 당신 말은? 그렇지 않으면... 웃는 게 들키면 어떻게 되는지 봤잖아요.

팻 - 그러면요?

그가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도미 - 나, 그룹에 속해 있어요.

팻 - 테러 조직이에요?

도미 - 네, 뭐 그런 셈이죠. 우리는 비밀 모임을 열어요. 농담을 나누고, 웃어요. 물론 노력해보는 거죠...

팻 - 황당한 농담들이요?

도미 - 당국을 조롱하거나 우리의 최고 지도자를 풍자하려면 제정신이 아니어야 하나요?

팻 - 하지만 당국을 비판하는 건 엄격히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최고 지도자를 무시하는 건 신성모독 아닌가요?

도미 - 예전에는 신성모독이 불법이 아니었어요.

팻 - 이걸 어떻게 알게 됐어요?

도미 - 책을 발견했어요.

팻 - 책이요?

도미 - 그리고 신문도요.

팻 - 그게 뭐예요?

도미 - 태블릿 같은 건데, 글자가 검은 잉크로 종이에 인쇄된 거예요.

팻 - 포장지 같은 거요?

도미 - 네트워크에 공유될 수 없으니 당국이 통제할 수 없죠.

팻 - 그러니 당연히 불법이겠네요.

도미 - 한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는 다른 시대였죠.

팻 - 기억이 안 나요.

도미 - 아무도 기억 못 해요. 당국이 모두 잊게 만들었으니까요. 책을 모두 태워버리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요.

팻 - 이 웃음이라는 것...

도미 - "웃음은 인간만이 가진 고유의 것이다"라고 예전에 말했죠. 이게 꿀벌, 개미, 흰개미 같은 사회적 동물들과 우리를 구별해주는 것이었어요...

팻 - 우리는 지능도 있잖아요.

도미 - 하지만 그게 얼마나 더 지속될지 모르죠... 교수들은 트레이너가 되고, 정치인들은 개혁자가 되었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데이터 수집가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컴퓨터로 전략하기 직전이에요...

맥스가 돌아온다. 두 사람은 즉시 대화를 멈추고 평소처럼 행동하려 한다.

팻 - 식사 어땠어요?

도미 - 어땠나요?

맥스 - 훌륭했어요.

팻 - 오늘 뭐였어요?

맥스 - 피자요.

도미 - 또요?

팻 - 언제까지 우리를 여기 가둬놓고 피자만 먹이려는 걸까요.

맥스 - 저는 피자 괜찮아요.

도미 - 탈출하면 어떨까요?

맥스 - 탈출이요? 그게 허용되나요?

도미 - 아니요, 당연히 안 되죠... 농담이었어요.

맥스 -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외부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위험도 있잖아요.

도미 - 관객들 포함해서요. 지금 당장은 별로 웃고 있지 않지만요...

맥스 - 그리고 어차피 곧 잡힐 거예요.

도미 -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팻 - 피자 더 남았나요?

맥스 - 냉동실 가득 있어요. 전자레인지로 데우기만 하면 돼요.

도미 - 나도 같이 갈게요.

도미와 팻이 떠난다. 킴이 다시 등장한다.

킴 - 그래서요? 뭔가 알아냈나요?

맥스 - 아무것도요... 제가 좋은 정보 제공자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하네요...

킴 - 나도 그래요... 어쨌든... 당신 생각은 어때요?

맥스 - 제 생각이요?

김 - 뭐라고 생각하냐고요?

맥스 - 아무것도요. 보스가 늘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위험하다고 하셨잖아요.

김 - 상관없어요. 이미 그들에 대한 파일은 갖고 있으니까요.

맥스 - 제 파일도 있나요?

김 - 물론이죠! 당신이 직접 썼잖아요, 경찰에 자수하고 보상을 받으려고요. 기억 안 나요?

맥스 - 기억나요... 당신 말대로 제가 다시 똑바로 살 수 있도록 재교육 캠프에서 10년을 보냈죠.

김 - 모든 사람이 당신 같다면, 우리의 문제가 훨씬 줄어들 거예요. 정말이에요.

맥스 - 보스, 정말 이 사람들이 위험한 게 맞나요?

김 - 아직도 의심이 드나요?

맥스 - 아니요, 당연히 아니죠...

김 - 당신이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으니, 스스로에 대한 또 다른 보고서를 작성하세요. 당신의 모든 일탈적인 생각들을 리스트로 작성해서 내일 아침 제 책상 위에 올려주세요.

맥스 - 알겠습니다, 보스.

맥스가 주위를 둘러보고 관객 쪽을 힐끔 본다.

김 -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맥스 - 아무것도요, 정말이에요.

김 - 당신이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 게 분명해요. 뭔데요?

맥스 - 그냥 궁금해서요... 여기가 대체 어디인가요?

김 - 폐쇄된 극장이죠.

맥스 - 극장이요?

김 - 사람들이 함께 모여 웃던 장소예요.

맥스 - 웃었다고요?

김 - 그 당시엔 합법이었어요. 무엇이든 웃을 수 있었죠. 심지어 당국에 대해서도요.

맥스 - 최고 지도자에 대해서도요?

김 -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웃을 수 있었어요.

맥스 - 다행히도 그런 시대는 이제 확실히 끝났네요.

김 - 맞아요... 설마 지금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맥스 - 저는 그 보고서를 쓰러 가겠습니다.

맥스가 떠난다. 김이 관객 쪽으로 걸어온다.

킴 -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특별히 걱정할 만한 증상은 없으신가요? 통제 불가능한 웃음 같은 거요? 좋습니다. 계속 잘 행동하신다면 곧 여러분을 풀어드릴게요.

킴이 떠난다. 도미와 팻이 다시 등장한다.

도미 - 당신 생각엔 그 사람이 맞나요?

팻 - 누구요?

도미 - 샘이요! 샘이 스파이라고 생각해요?

팻 - 그러면 이제 내가 스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네요.

도미 - 맞아요.

잠시 침묵.

팻 - 그 부부 말이에요, 당신도 정확히 기억하고 있죠, 그렇죠?

도미 - 무슨 부부요?

팻 - 그 남자가 자기 아내에게 농담을 했고, 둘이 같이 웃었던 그 부부요.

도미 - 내가 그들을 기억한다고 왜 생각하죠?

팻 - 그 부부가 우리니까요.

도미 - 네, 그럴지도요. *(잠시 침묵)* 당신, 그 전에 한 번도 웃어본 적 없었죠?

팻 - 없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뭔가...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었고... 조금 부끄러웠어요.

도미 - 이해해요. 처음 웃을 땐 항상 그런 기분이 들죠.

팻 - 당신은요? 나 전에 다른 여자들과도 웃었어요?

도미 - 네. 다른 여자들과도, 남자들과도요. 때로는 한 번에 여러 명과도요.

팻 - 여러 명이요...

도미 - 좋았나요?

팻 - 저... 잘 모르겠어요...

도미 - 좋았을 거예요.

팻 - 네...

도미 - 한번 웃어보면 그 후엔 그걸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팻 - 그게 저를 두렵게 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갇혀 있는 이유가 그거 아닌가요?

도미 - 네... 우리 맞은편에 앉아 있던 두 사람이 경찰이었겠죠.

팻 - 그 사람들이 우리를 여기 데려왔어요. 얼굴에 마스크를 썼지만, 그들의 목소리를 알아챘어요.

도미 - 그럼 알고 있었던 거네요.

팻 - 네. 그런데 왜 두 사람이 웃었다는 이유로 그들을 그렇게 걱정하게 만들었을까요?

도미 - 웃음은 파괴적일 수 있거든요. 그들도 그걸 알아요.

팻 - 파괴적이요? 건강에 나쁘다는 뜻이에요?

도미 - 건강에는 아니에요. 사실 건강에는 오히려 좋죠. 하지만 그들에겐 웃음이 위험해요.

팻 - 왜요?

도미 - 무엇이든 웃기 시작하면 훨씬 덜 순진해지고, 따라서 덜 순응하게 돼요. 웃음은 전복적이예요...

팻 - 그럼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도미 -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들을 두렵게 하거든요.

팻 - 우리가 그들을 두렵게 한다고요?

도미 - 웃음은 전염되니까요. 이 전염병이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함께 몰락시킬까 봐 걱정하는 거죠.

팻 - 당신 생각엔 그들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겠어요?

도미 - 이미 그 옵션은 고려했을 거예요. 하지만 모두를 죽일 수는 없죠...

팻 -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도미 - 하나 더 들려줄까요?

팻 - 또 다른 농담이요?

도미 - 어차피 죽을 거라면, 웃다가 죽는 게 낫잖아요...

팻 - 미리 말해두는데, 저 결혼했어요.

도미 - 걱정 마세요, 웃는 건 정말로 바람피는 게 아니니까요.

팻 - 듣고 있을게요...

도미 -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요...

팻 - 잠깐, 다른 데로 가요. 누가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도미 - 맞아요... 제 방으로 갑시다.

둘이 떠난다. 킴과 맥스가 다시 등장한다.

맥스 - 여기 있어요, 보스. 제 보고서입니다.

킴 - 내용이 별로 없네요... 빠뜨린 건 없나요?

맥스 - 절대 없습니다, 보스.

킴 - 그들은 어디 갔죠? 설마 도망친 건 아니겠죠...

맥스 - 방에 있을 거예요.

도미와 팻의 웃음소리가 크게 들린다.

킴 - 이제 확실하군요.

맥스 - 네, 그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게 분명해요.

둘은 다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듣고 약간 당황하고 불안해한다.

킴 - 당신, 웃어본 적 있어요?

맥스 - 없어요. 당신은요?

킴 - 고통스러워 보이지 않아요?

맥스 - 모르겠어요, 제가 방금 웃어본 적 없다고 했잖아요. 또 속이려는 건가요?
무대 뒤에서 웃음소리가 다시 터져 나온다.

킴 - 끝났네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당국에 보고해야겠어요.

어둠.

제 3 막

김은 여전히 검은색 마오 셔츠를 입고 서 있다. 도미, 팻, 맥스는 앉아 있다. 도미와 팻은 여전히 병원 가운을 입고 있는데, 색깔은 파랑, 핑크 또는 초록색이다. 하지만 맥스는 이제 간호사의 흰 가운을 입고 있다.

김 - 사랑하는 친구들, 먼저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팻 -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도미 - 우리는 죄수잖아요!

김은 헛기침을 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말을 이어간다.

김 -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여기 부른 이유는 단체 치료 세션을 하기 위해서예요.

팻 - 심문하려고 부른 거겠죠...

김 - 여기 도착한 후 두 분이 웃음 발작을 일으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격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한 분이 감염되었고, 다른 한 분은 접촉을 통해 바이러스를 옮겼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도미 - 그렇다면 이미 알고 있으면서 왜 조사의 척을 하는 건가요?

김 - 유죄인 당사자가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 치료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맥스 - 웃음이요? 우리요? 하지만 우리는 그게 뭔지도 모른다고요. 그렇죠, 친구들?

팻 - 좋아요, 이제 그만 연기하세요... 당신이 스파이라는 거 알아요.

맥스 - 하지만 정말로...

도미 - 게다가 아주 못하는 스파이네요.

맥스 - 좋아요, 알겠어요... 잠입 요원일 수는 있지만 스파이는 아니에요. 스파이는 적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오픈 편에 있잖아요, 그렇죠, 보스?

김 - 이 신사는 스파이가 아닙니다. 정보 제공자죠.

도미 - 그럼 당신은요? 당신은 정확히 뭔가요?

김 - 저는 여러분의 개혁자입니다.

도미 - 개혁자요?

김 - 여러분을 재포맷하러 왔습니다.

도미 - 개혁자라는 말이 그런 뜻이 아닌데요.

김 - 사전에 찾아보세요. 그렇게 나올 겁니다!

도미 - 당신들이 사전 전체를 다시 썼잖아요! 하지만 저는 오래된 백과사전 한 권을 발견했고, 단어들에 원래 무슨 뜻이었는지 알아요.

김 - 이제 단어의 정의는 모두 국가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당국이 결정합니다.

도미 - 당신들은 모든 걸 다시 썼어요, 심지어 성경까지! 신을 최고 존재로 바꾸고, 과거의 흔적을 없애려고 모든 책을 태워버렸죠!

김 - 분명 우리가 몇 권 놓친 것 같네요... 당신이 몇 권 읽은 것 같군요.

도미 - 요즘 볼 수 있는 유일한 읽을거리는 화면에 표시되고, 전부 당신들 통제하에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 배포되는 것뿐이잖아요.

팻 - 그러니까 우리를 재포맷하겠다는 건... 우리의 하드 드라이브를 지우고 당신들 운영 체제를 설치하겠다는 거죠?

도미 - 거기에 아마 안티바이러스도 추가하겠죠...

김 - 웃음은 매우 중독성이 강합니다. 한 번 웃으면 계속 웃고 싶어지거든요.

팻 - 웃음이 마약이라는 말인가요?

도미 - 적어도 강한 마약은 아니죠.

김 - 웃음 의존은 알코올 의존과 비슷합니다. 완전히 없애기는 어려워요. 웃음을 멈출 수는 있지만, 유혹은 항상 존재하죠.

맥스 - 한 번 알코올 중독자는 영원한 알코올 중독자라는 말처럼요.

김 - 그리고 당신이야말로 그걸 잘 알겠죠. 우리가 당신을 10 년 동안 재활 치료소에 보냈잖아요. 몰래 술을 마시다가 경찰에 자수했죠.

맥스 - 이제 술은 마시지 않아요.

도미 - 하지만 확실히 먹는 건 좋아하죠...

맥스 - 그럼 이 치료라는 게 AA 모임 같은 건가요?

김 - 맞아요... 웃음 익명 모임 같은 거죠.

팻 - 그리고 목표는 몰래 웃는 사람을 찾아내는 거겠죠.

김 - 정확해요.

도미 - 그런데 그걸 어떻게 찾아낼 건가요?

김 -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재미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누가 웃는지 보죠.

팻 - 그러니까 테스트 같은 거네요.

도미 -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무도 웃게 할 수 없을걸요.

김 - 왜요?

도미 - 웃음을 끌어내려면 적절한 분위기와 좋은 동료들이 필요하니까요.

팻 - 그리고 당신 말에 따르면 여기서 먼저 웃는 사람은 재교육 캠프에 보내질 거라는 거잖아요.

도미 - 운이 좋으면요. 심지어 처형당할 수도 있죠.

김 - 어떻게 알았어요?

팻 - 이미 너무 웃기려고 해서요...

김 - 좋아요, 그래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맥스 - 모두 귀 기울이고 있어요, 보스.

김 - 어떤 남자가 거울을 발견했어요. 거울을 보더니 자기 모습을 보고 말하죠. “이 자식,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그러자 친구가 거울을 가져가서 들여다보며 말해요. “당연하지, 그게 나잖아!”

맥스 -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도 안 되잖아요.

김 - 그래서 웃긴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나요?

도미 - 게다가 농담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팻 - 그리고 누가 이야기하느냐도 중요하고요.

김 - 그래요?

팻 - 웃으면 처형당할 거라는 걸 알고 있다면, 웃음이 나오겠어요?

김 - 안 나오나요?

팻 - 그럼요, 당연히요.

김 -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렇게 하죠... 처음 웃는 사람은 조롭을 받는 걸로!

도미 - 조롭이요?

도미와 팻이 웃음을 터뜨린다.

맥스 - 조롭이라니...

웃음은 전염되기 때문에 맥스도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한다.

김 - 이제 보니 모두 감염됐군요.

도미 - “For he’s a jolly fun fellow, which nobody can deny...”

(그는 유쾌한 친구, 누구도 부정할 수 없지요)

김 *(맥스를 향해)* - 좋아요, 이제 당신은 진짜 격리 상태입니다.

맥스 - 네, 보스.

도미 - 처음 웃는 사람은 조롭을 받는다...

맥스는 멈추려고 하지만 웃음을 멈추지 못한다.

김 - 웃긴가요?

맥스 - 전혀요! 아니, 맞아요, 하지만...

도미 - 보세요, 노력하면 당신도 웃길 수 있어요. 사실, 노력 안 할 때 더 웃기지만요.

모두 히스테리컬하게 웃음을 멈추지 못한다. 김은 매우 불편해하고 웃음에 거의 겁먹은 표정이다.

김 - 즉시 웃음을 멈춰요! 명령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웃음을 멈출 수 없다. 김은 귀를 막고 급히 떠난다. 도미, 팻, 맥스는 서서히 웃음을 멈춘다.

도미 - 이제 당신도 우리 중 한 명이군요. 기분이 어때요?

맥스 - 웃는다고요? 잘 모르겠어요... 고통스러울 줄 알았는데, 꽤 즐겁네요.

팻 - 정말 즐겁네요...

맥스 – 그리고 속이 후련해요.

도미 – 생각해보면, 우리는 공공장소에서 웃을 수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팻 –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요?

도미 – 오래전에 시작된 일이죠.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스며들었어요. 처음에는 특정 주제에 대해 웃는 것이 불법이 되었죠. 첫 번째는 종교였어요...

맥스 – 그리고 당연히 그다음은 당국이었죠.

도미 – 그리고 최고 지도자를 새로운 신으로 만들고, 어떤 비판도 신성모독으로 낙인찍었죠.

맥스 – 그리고 술도 불법으로 만들었어요. 술을 마시면 더 쉽게 웃게 되니까요.

도미 – 당국은 여전히 웃을 수 있는 주제의 목록을 발표했죠. 하지만 매년 그 목록은 점점 짧아졌어요.

맥스 – 결국 웃는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더 쉽다고 결론을 내렸죠.

도미 –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웃을 수 없는 것에서 아무것도 웃을 수 없는 상태로 조금씩 바뀐 거예요.

맥스 – 결국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웃을 수 없게 되었죠...

도미 – 가난한 사람들조차도 자기 상황에 대해 웃을 수 없었어요.

팻 –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모두를 그렇게 통제할 수 있었죠?

도미 – 당국은 웃음을 정신질환으로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웃다가 잡히면 즉시 정신병원에 보내졌죠.

맥스 – 그리고 당연히 웃음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금지했죠.

도미 – 신문은 금지되고, 극장은 폐쇄되고, 자기 검열이 만연했어요...

맥스 – 광대, 코미디언, 배우는 위험한 테러리스트로 분류됐어요.

도미 – 중세의 나병처럼 웃음을 취급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웃는 소리가 들렸다는 이유로 집 안에 갇혀 생매장되기도 했죠.

맥스 – 우리는 또 모든 인구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요했죠.

도미 –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은 미소 한 조각이라도 보이지 않게 하려는 거였어요. 마스크는 마치 입막음 장치가 됐죠.

맥스 – 과거에 특정 종교에서처럼요.

도미 – 당국이 유일한 종교가 되기 전이었죠.

맥스 – 조금씩,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졌어요.

도미 – 웃음이 불법이 되면, 비판하거나 항의하는 것도 당연히 불가능해지죠.

맥스 – 더 이상 사회 갈등도, 정치적 논쟁도, 그래서 선거도 없어졌어요.

도미 – 이미 많은 세속적이거나 종교적인 독재국가에서 그랬죠.

맥스 - 당국은 이 병이 완전히 근절되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몇몇 독립적인 사례가 다시 나타났죠. 여러분이 바로 그중 하나예요.

팻 -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려는 걸까요? 죽이려고요?

맥스 - 네, 하지만 먼저, 여러분은 고질적인 웃음 환자라 치료가 불가능하니 실험 대상으로 쓰려고 했죠.

팻 - 실험이요?

맥스 - 대중의 반응을 연구하고, 질병이 어떻게 퍼지는지 관찰하며, 웃음이 본래 건강한 사회에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이해하려는 거죠, 그런 종류의 실험이에요.

팻이 관객을 바라본다.

팻 - 우리가 그들을 웃기게 하려고 했던 건가요?

도미 - 우리는 몇 가지 어설픈 농담밖에 모르는데요...

팻 - 우리는 웃는 법과 다른 사람을 웃기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잠시 침묵.

맥스 - 그런데 만약 최고 지도자가 우리를 버린다면요?

도미 -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겠죠. 뇌 훈련자는 다시 교수로 돌아가고, 개혁자들은 정치인으로 돌아갈 거예요.

맥스 - 그럼 저 같은 정보 제공자는요?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저는 어떻게 되는 거죠?

도미 - 아무것도 못 한다면, 배우가 될 자격이 충분하죠.

어둠.

제 4 막

팻이 무대 위를 걱정스럽게 서성인다. 그녀는 관객 쪽으로 다가간다.

팻 - 걱정 마세요, 곧 여러분도 자유롭게 나가게 될 거예요. 적어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도미가 등장한다.

도미 - 뭐 새로운 소식 있어요?

팻 - 여전히 없어요. 바깥에서 약간의 소란 소리가 들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소리가 많이 울리더라고요.

도미 - 극장은 항상 방음이 잘 되어 있잖아요.

팻 - 스파이는 어디 갔어요?

도미 - 피자나 마저 먹고 있을 거예요...

팻 - 여전히 여기에 갇혀서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있네요. 며칠째 바깥세상에서 아무 소식도 못 들었어요.

도미 - 냉동고가 비면 우리 굶어죽겠죠. 웃다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팻 - 우리가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요?

도미 - 어떤 의미로는, 이 격리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죽은 거 아니었을까요...?

팻 - 맞아요. 우리가 수년간 앓아온 유일한 진짜 병은 끝없는 절망감과 우울증이었어요.

도미 - 그리고 웃음이야말로 그 해독제 같은 거죠.

맥스가 다시 등장한다.

맥스 -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도미 - 아니요...

셋이 귀를 기울여 조심스럽게 듣는다.

팻 - 잠깐만요... 어쩌면... 아주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아요...

도미 - 그거 혹시... 웃음소리 아니에요?

맥스 - 웃음소리요? 웃음 폭발 말인가요?

킴이 등장한다. 초췌한 모습에 웃도 흐트러져 있다. 그녀는 '웃음 금지' 도로 표지판을 들고 있다. 표지판에는 웃는 이모티콘에 빨간색 선이 그어져 있고 빨간 테두리가 둘러져 있다.

맥스 - 보스, 꼴이 말이 아니네요. 무슨 일이에요?

킴 - 상황이 변했어요...

맥스 - 좋은 방향으로 변한 것 같진 않네요.

킴 - 누구에게 묻느냐에 따라 다르죠.

맥스 - 전염병이 확산된 건가요?

김 - 안타깝게도, 이제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되었어요. 통제 불가능한 웃음 위기가 발생했죠. 일 반화된 통제 불가능한 웃음소리들로 가득해요. 도시 전역에서 웃음 폭발이 보고되고 있어요.

맥스 - 정말 그렇게 심각해요?

김 - 길모퉁이마다 웃음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어요. 경찰은 완전히 힘을 잃었어요. 더 심각한 건 많은 경찰들이 이미 웃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웃다가 숨을 못 쉬고요. 웃다가 배가 찢어지 고, 웃다가 오줌을 지리고, 웃다가 목이 날아갈 정도로요. 하이에나처럼 웃고, 바닥을 구르면서 웃고, 웃다가 눈물이 날 정도죠!

맥스 - 아, 웃으면서도 울 수 있나요?

김 - "사람이 많을수록 더 즐겁다"는 표현 들어본 적 있나요?

맥스 - 아니요.

김 - 그 표현대로라면, 지금 웃고 있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도미 - 그럼 혁명이 오고 있다는 말이네요...

김 - 혁명이라기보다는 체제가 붕괴되고 있는 거죠... 당국은 사퇴했고, 최고 지도자는 나라를 떠났어요.

맥스 - 최고 지도자요? 어디로 갔는데요?

김 - 바티칸에 정치적 망명을 요청했어요. 거긴 웃음 관련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까 요.

팻 - 그럼 우리를 어떻게 할 건가요?

김 - 더는 여러분을 격리시킬 이유가 없어요. 이제 자유롭게 나가도 됩니다.

도미 - 드디어... 정말 기대되네요. 사람들이 거리에서 웃고, 대중교통에서 웃고, 그리고 내일은, 누가 알아요, 아마도 영화관과 극장에서까지 웃을지도요.

김 - 저는 조금도 웃기지 않네요.

팻 - 아, 그만해요! 우리랑 같이 실컷 웃어봐요!

도미 - 전에 들어본 적 있으면 멈춰주세요... 한 남자가 온 세상을 웃음에서 멈추려고 했어요...

맥스 - 그리고 결국, 그는 자신이 웃음으로 숨이 막혀버렸죠.

모두 큰 소리로 웃는다. 김도 긴장하며 웃기 시작하지만, 웃음이 경련으로 바뀌고 결국 바닥에 쓰러진다. 팻이 그녀에게 다가가 몸을 숙인다.

팻 - 그녀가 죽었어요! 정말로 웃다가 죽을 수 있군요!

맥스 - 최근 보고된 이야기예요. 당국의 구성원들은 폭소를 들으면 즉시 쓰러지 더라고요.

도미 -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전염병을 근절하려고 했던 거군요.

팻 (맥스를 향해) - 그런데 당신은 안 죽었네요.

맥스 - 아마도 꽤 전에 믿음을 버려서 그런가 봐요...

도미 - 어떤 의미로는 이미 예방접종을 받은 셈이죠. 우리처럼요!

팻 - 그럼 이제 우리는 자유로운 거예요?

도미 - 다시 무엇이든 웃을 수 있는 자유를 찾은 거죠!

팻 - 생각해보면, 우리가 여기 온 이유가 조류독감이나 칭다오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잖아요.

맥스 - 그럼 이제 뭐 하죠?

도미 - 다시 웃는 법을 배우고, 다시 사는 법을 배우죠.

팻 - 그거 좀 무섭게 들리네요...

도미 - 그건 정상이에요. 해방된 노예들도 처음에는 그들의 자유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맥스 - 그럼 나는 술을 다시 시작할까요?

팻 - 물론이죠! 하지만 이제는 그게 필요 없을 거예요.

맥스 - 정말 멋지네요! 그런데 조금 어지러워요.

도미 - 네... 우리는 죽은 마술사의 비둘기죠.

맥스 - 그게 무슨 뜻이에요?

도미 - 우리는 마술의 트릭에서 태어났어요. 하지만 우리를 무에서 소환한 마술사는 이제 더 이상 없죠. 우리가 여기 오게 된 마술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날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잘 기억하지 못하죠...

팻 - 아름다워요.

도미 - 그게 바로 시죠.

팻 - 시요?

도미 - 그것도 그들이 금지했던 것 중 하나예요.

팻 - 그런 게 더 있어요?

도미 - 훨씬 더 많아요! 예를 들어 오르가즘. 그것도 뭔지 모르죠?

팻 - 몰라요. 이미 말했잖아요, 저 결혼했어요...

도미 -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여줄게요. 보세요. 오르가즘은 사랑에 있어서 웃음이 지능에, 재채기가 감기에 해당하는 것과 같아요. 아무것도 고치지 못하지만, 일시적인 해방감을 줘요.

킴이 의식을 되찾는다.

팻 - 저기 보세요, 완전히 죽은 건 아니었네요.

맥스 - 아마도 그녀도 진짜 믿는 사람은 아니었나 봐요.

킴 -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죠?

팻 - 웃음 발작을 일으켰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제 모든 게 잘될 거예요.

맥스 - 그런데 관객은요? 우리가 잊고 있었네요.

도미 - 이제는 그들을 웃겨도 심각한 결과가 따르지 않을 테니...

맥스 - 우리도 할 수 있나요, 보스?

킴 - 여긴 결국 극장이잖아요.

도미 - 새로운 농담을 만들어야겠네요, 그렇죠?

킴 - 네, 왜냐하면 거울을 본 남자들에 대한 농담은 아직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도미 - 다르게 봐야 해요. 그건 상징적이예요.

킴 - 상징적이요? 그게 또 뭐예요?

도미 - 유머는 거울 같아요. 배우들이 관객에게 자신을 비춰볼 수 있도록 거울을 드는 것처럼요.

팻 - 그리고 누구나 그 거울에서 자기 모습을 알아볼 수 있어요.

도미 - 누구나요. 바보를 제외하고요. 바보들은 거울에 비친 우스꽝스러운 얼굴을 보기 싫어서 거울을 깨버리기를 선호하죠.

맥스 - 그럼 웃어봅시다!

도미 - 이것이 우리의 자유예요. 지난 세기의 한 코미디언을 인용하자면: "자유는 사용하지 않을 때 사라지는 거예요."

팻 -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 모두와 함께 항상 웃을 수 있기를...

맥스 - 왜냐하면 오늘 모든 것에 대해 웃을 수 없다면, 내일은 아무것도 웃을 수 없게 될 테니까요.

맥스가 '웃음 금지' 표지판을 들어 킴의 머리에 내리친다. 모두 크게 웃음을 터뜨리고, 필요하다면 *canned laughter* 를 더할 수 있다.

어둠.

끝.